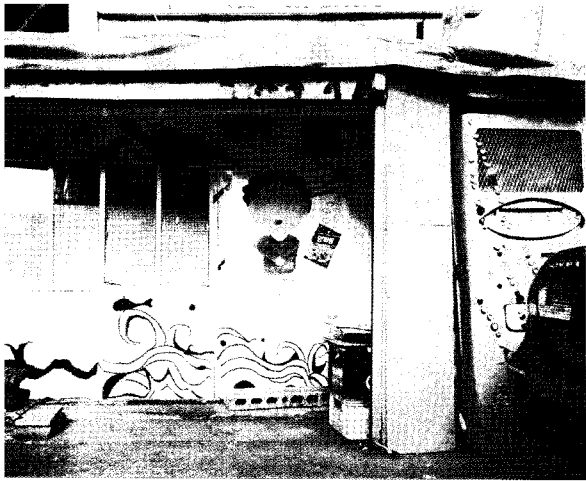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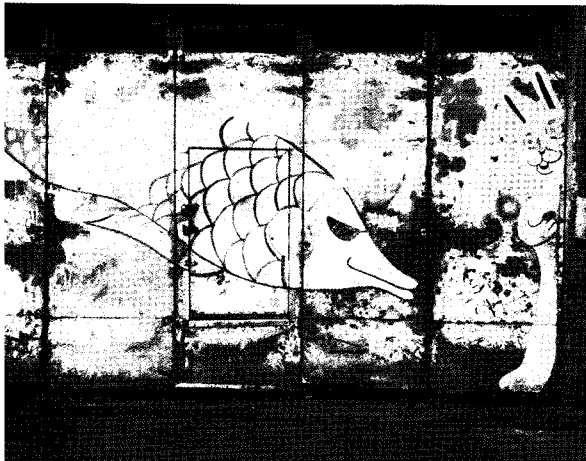
문화적 소외지에서 문화적 트렌드의 중심으로 변신한 문래동 예술촌을 가다

서울의 대표적 낙후지역(?) 중 하나였던 문래동이 문화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예술가들의 창작 실험실로 변신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그곳에서 다양한 시도와 통해 생활 속 아트를 실천하는 아티스트와 그들의 작품을 만나본다.

글/사진 · Willy기자



1	2	① ② ④ 어둡고 육중한 문래동 철재상가의 출입문들이 젊은 작가들의 다채로운 그림들로 활기찬 변신을 꾀하고 있다. ② 문래동 예술촌에는 구멍가게 조차 예술로 포장되어 있어 신비로움마저 든다.
	3	
	4	
	5	



서울의 문래동이 뉴욕 브루클린을 압도하는 색다른 문화의 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뉴욕의 브루클린이 뒷골목 범죄가 들끓던 우범지대에서 문화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면 우리의 문래동은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

문래동은 매우 생산적인 시설 즉, 산업 활동에 없어서는 안되는 철재 재료 및 부품을 생산·가공하던 곳에서 문화적 창의력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래동은 6.25 전쟁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소규모 철재공장이 밀집했던 곳으로 한때 1,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비약적 경제발전과 함께 그 규모를 불려왔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도시정비계획에 의거 고층건물이 들어서며 새로운 도심으로 변모해감에 따라 그 명성을 많이 상실했으나 아직도 그 생산적 활동 열기만은 뜨거운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저렴한 임대료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티스트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이곳에 등지를 튼 작업실만 해도 50여개 정도로 경제발전의 밑거름에서 문화발전의 밑거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역할의 변화를 대변하는 듯 이곳의 생산 활동을 보면 낮에는 쇠뿔이 달구고 자르는 소리와 냄새로 요란한 곳에서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예술가들이 지배하는 문화적 특구로 변신 한다.

하지만, 이곳 문래동에 등지를 튼 작가들은 외부인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으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가는 시기이기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방망한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겠으나 그 점이 오히려 매력일 수도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 작가들의 작품도 현재 사용 중인 점포의 외벽과 출입문 등에 설치되어 있어 이들이 일을 마친 후이나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시도되어 '물레 아트 페스티벌'이나 극단 몸꼴, Mei Kuang Li, Kimiyo Ogawa, Shoko Kashima 등의 외국인과 국내작가들이 함께 아시아 즉흥 예술 교류'를 펼쳤으며, 무용·연극·회화·사진·영상·퍼포먼스·문학·학술행사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국제적 예술축제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 향후의 발전방향이 매우 기대되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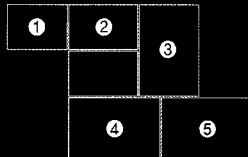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도 국내의 예술인의 창작과 교류 공간을 형성해 문화명소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아트 팩토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그 발전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그 기대가 크다.



문래동의 진면목은 고단한 삶의 현상이 예술촌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철재 다듬고 자르는 소리와 이것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모습은 분명 매우 고되어 보이는 삶의 현장이기에 이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그들 곁에 공존하고 있는 예술품을 감상한다는 것이 맘 편하지만은 않고 어쩐지 죄 짓는 듯한 심정이며 조금은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이곳 근로자들은 이곳을 찾는 이들과 많이 마주쳐 보아서인지 아니면 예술촌으로의 변신을 반겨서 인지는 몰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며 때로는 매우 협조적인 분위기도 느껴진다.

우리의 문래동이 분명 뉴욕 브루클린이나, 첼시의 이틀리에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삼청동이나 헤이리 마을 등과도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래동의 변신은 기대하는 바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철재상가의 엷히고설킨 건물들을 살펴다보면 그 곳에서 작가들의 보석 같은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감은 마치 보물을 찾은 듯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뚜렷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온다. 또한, 가끔 펼쳐지는 거리공연은 또 하나의 행운이기도 하다.

취재차 찾아간 지난 4월 10일의 경우, 경계없는예술센터(ASF)에서 가로등이 전하는 이야기(v2009) 공연(윤기훈 작/연출)이 펼쳐졌는데 이날 공연은 여의도 벚꽃놀이와 연계해 관람객이 대형 버스로 이동해와 문래동 철재상가 골목골목에서 진행되는 연극 3편을 관람하는 거리공연이 펼쳐졌다.



- ① 문래동 철재상가 근로자들의 몸과 마음의 허무함을 채워주고 있는 작은 식당도 예술로 승화되어 있다.
- ② 새한철강상사 합지운 사장이 작업한 작품.
- ③ 한국벽화의 입체적 디자인(BYEOK HWA라고 표현한 감각이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 ④ 벽면의 나비가 마치 주인이 무심코 세워놓은 자전거 바구니에서 날아오르는 듯하다.
- ⑤ 경계 없는 예술센터(ASF)에서 가로등이 전하는 이야기(윤기훈 작/연출) 길거리 공연을 펼치고 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힐 것 같지도 않은 실체 없는 꿈을 찾아 헤매는, 그러나 적어도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진 공연은 40여명의 관객과 함께 어우러져 찬사를 받았으며 관객 중에는 외국인의 모습도 여럿 보였다. 한국을 몇 번 찾은 적이 있다는 John(42, 미국인 New Mexico 거주)씨는 거리공연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오는 버스를 탔는데 공연이 펼쳐진 장소도 인상적이었으며 이곳저곳에 그려진 작품은 그 정교함에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래동 예술촌에서 우리는 대단한 주목을 받는 작품을 만나지는 못할 지라도 아주 특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이 예술로 무궁무진하게 승화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볼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저녁이 되어 생산현장이 문을 걸어 잠그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예술촌. 미리 준비하고 끼워 맞춘 예술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활용한 예술 공간인 이곳 문래동을 찾는 이들은 언젠가 작가들과 열린 대화를 할 수 있기에 우리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영등포 등기소 건너편에 형성되어 있다.

